

트럼프 시대의 중 · 미관계

2017년 제3회 한 · 중 경제포럼

1. 주 제 : 트럼프 시대의 중 · 미관계
2. 일 시 : 2017. 9. 28(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 발전연구기금회 팡진(方晋) 부비서장

1.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 변화

□ 반세계화 확대

- 미국, 영국 등 주도로 진행된 세계화는 1990년대 이후 IT산업 발전, 동유럽 및 구소련의 시장경제 전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가속화됨.
- 그러나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2017년 트럼프 당선 등으로 경제통합, 세계화에 있어서도 변화가 시작됨.
- 세계화의 트릴레마(trilemma)¹⁾와 국내 정치경제 정책의 변화
 - 경제세계화와 무역자유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주도로 추진되었는데 현재의 반세계화도 마찬가지로 두 국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통해 민주정치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선택하였으나 각각 국내 정치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영국은 브렉시트(Brexit)를 추진

1) 세계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민주정치, 국가주권,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중 두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는 딜레마

그림1. 세계화의 트릴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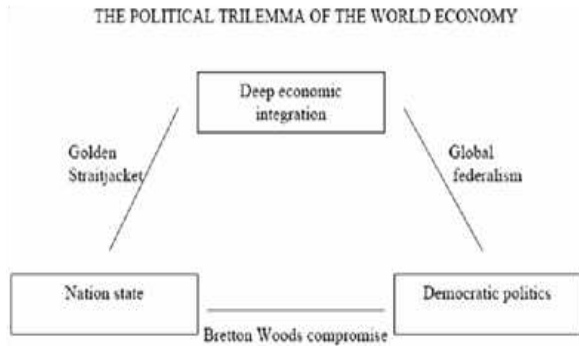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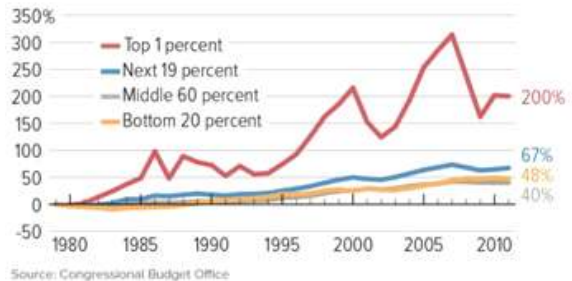


그림2. 미국 국내 소득격차 확대

Income Gains at the Top Dwarf Those of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Percent change in real after-tax income since 1979



□ 트럼프 당선: 미국 우선주의

-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찰' 노릇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 군사개입과 국제의무는 감소 할 것임.
- 국내 경제성장, 특히 고용창출 증가에 주력: 감세, 인프라 시설 투자
- 대외경제 마찰 증대: 무역적자 감소, 해외투자 자금 회수, 이민 반대
 -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미국 고립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음. 자국 이익에 따라 국제 경제활동에 대한 재정의와 참여 변화를 의미할 뿐, 미군의 선두적 지위 유지와 동시에 필요 시 무력을 사용할 것을 의미
 - 미국은 향후 양자 협상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양자 협정은 자국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으나 지역통합이나 다자간 FTA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임. 트럼프 당선 이후 TPP 탈퇴, NAFTA 재협상 재출,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알 수 있음.

□ 중국 현황

- 지도자의 핵심 확립과 '4개 전면(四个全面)' 추진: 전면적 당풍쇄신(从严治党, 엄격한 당 관리), 전면적 사회건설, 전면적 개혁심화,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国, 법에 따른 국가통치) 실현
 - 중국은 과거 마오쩌둥(毛泽东)과 덩샤오핑(邓小平)이 지도자의 핵심을 확립하였을 뿐 장쩌민(江泽民)과 후진타오(胡锦涛)는 지도자 핵심을 확립하지 못함.
- 더 이상 '도광양희'(韬光养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 키우기)를 추구하지 않고,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킴.
 - '도광양희'는 1990년을 전후로 당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중국은 국제적인 압박에 직면함에 따라 덩샤오핑이 추진한 대외전략임.
 - 20여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 역량이 크게 향상됨. 앞서 2003년에 후진타오는 '중국의 평화로운 궤기'를 제기한 적 있는데 외부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평화로운 발전'으로 수정하였음.
 - 중국이 발전하면서 국가 위상도 크게 제고됨.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대대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꿈(中国梦)'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제시함. 아울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중국이 직면한 도전: 경제성장률 둔화, 외부 안보위협

-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9% 이상의 고속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됨. 경제둔화는 주기적인 요인과 성장단계 특징(중고소득 국가 진입 후 경제성장률 둔화는 정상적인 현상), 중국 경제체제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그림3. 중국의 GDP성장률 변화추이



그림4. 중국이 직면한 외부 안보위협



-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제고는 경제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향후 성장률 둔화를 중시해야 함. 향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면 중국의 국제영향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음.
- 중국은 주변국과 국경분쟁이 가장 많은 국가임. 남해문제, 한반도 문제, 인도와의 충돌 등 문제가 많음. 외부적 안보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성장과 민생 발전에도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함.

2. 중미관계 전망

□ 중요한 양자관계

-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경제규모 1, 2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며, 상호간 긴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보분야에도 다소 복잡한 관계를 형성함.
-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과 구소련은 안보에 있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경제교류는 긴밀하지 않았음. 현재 중미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긴밀해짐에 따라 관계가 더 복잡해짐.

□ 미국은 중국과의 양자 경제관계에 있어 더 공세적으로 나설 전망

-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균형을 요구하고, 대중 수출 확대와 수입 축소를 추진
- 환율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위안화 절상 요구가 예상
- 미국은 중국 진출 기업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상호주의(Reciprocity)에 입각해

지속적 개선을 요구할 예정

- 지적재산권: 통상법 301조 조사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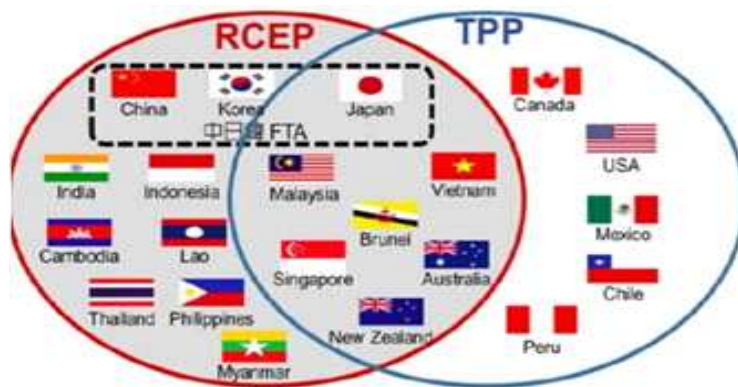
□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

-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아시아 및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
 -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다수 인사들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동의함.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즉시 TPP에서 탈퇴하였는데 이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침.

□ 중국의 향후 대응 방향

- 경제 분야에서 일부 양보할 여지가 존재하며, 개방 확대는 중국 발전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무역: 농업 및 서비스업
 - 투자: 외자정책에 있어 개방 확대, 규제 정책 완화
-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적극 확대: 외교안보, 경제, 인터넷 안보, 사회 및 인문 분야에서 대화채널 확대
- 지역 및 다자분야(AIIB, BRI, RCEP, 기후변화 등)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 안보분야에서 중국은 반드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해소해야 함.

그림5. 지역 및 다자분야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 강화



□ 향후 전망

- 트럼프 시기에도 양국 간에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겠지만 오바마 시기보다는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중미 양국은 상호 의존, 호혜공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개방적 마인드의 소유자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경우 국민들의 관심을 해외문제로 이전시킬 수도 있음.
-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여부에 따라 대외개방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5년에 위안화가 대폭 절하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기업의 해외투자도 대폭 증가함. 이에 반해

- 국내 민간투자는 위축되는 추세를 보임. 이에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환율안정, 외환보유액 안정 등 조치를 취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국제적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약화됨으로서, 대외개방 기조가 변화할 수 있음.
 - 북한 핵실험, 중국인도 국경 분쟁, 테러 등 외부 안보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것임.

그림6. 중국자본의 해외유출과 환율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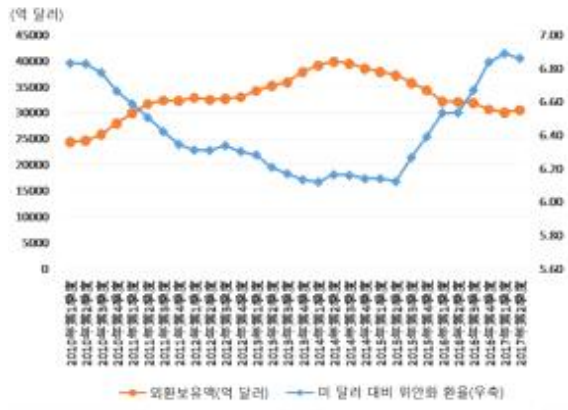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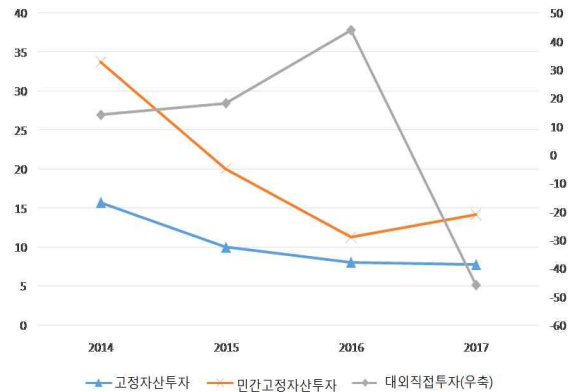


그림7. 중국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 추이 비교(%)



질의응답:

질문 1)

트럼프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경찰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집착하는 느낌이 있음. 이는 협상의 기술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함. 또한 트럼프 취임 후 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해서 중국정부는 수입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걸로 알고 있음. 예컨대 해외직구도 원래는 2017년 말까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내년 말까지 연장되었고, 전기차 생산 쿼터제 실시를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유예하는 등 많은 서방국가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한 어떠한 배경 하에서 이러한 정책이 제정되었는지, 중미간 BIT 협정은 2017년 말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답변 1)

당초 많은 사람들은 북한 핵문제가 중미 양국 협력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을 예상치 못했음. 트럼프는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첫 번째는 북한이 보유한 핵기술이 미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임. 또 다른 가능성은 트럼프의 협상 수단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에 비중을 높게 두고 있음.

중국이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원인은 (1)서방국가의 압박 하에서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도 있고, (2)대외개방 확대를 중국 국내경제 둔화에 대한 일종 대응책으로 볼 수도 있음. 앞서 소개한 것처럼 현재 중국의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함.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해 좀 더 전면적인 이해를 가져야 함.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가 외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함.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적으로 고용 창출과 조세 증가, 생산 증가 이외에도 기술, 관리, 시장 마케팅 등 경험을 습득

할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이 향후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라도 외자기업 유치는 필요함.

중미 BIT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기업이 미국국내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지만 안보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를 두고 있음. 따라서 중미 BIT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질문 2.

최근 중국정부가 외자 진입에 대한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시장 진출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다고 하나 실제로 진출 이후 국내 산업정책을 비롯한 각종 원인으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제약요인은 여전히 많은 편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 지난 몇 년간 반부패 조치를 적극 추진함으로 인해 마오타이주(茅台酒)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는데 최근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음. 이는 공산당의 부패단속의 악화를 의미하는가?

답변 2.

외자기업이 중국시장 진출 단계와 진출 이후 운영과정에 있어서 직면한 문제는 다름. 중국정부의 대외개방 확대조치에 따라 외자기업이 진출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많이 사라졌지만 진출 이후에는 여전히 산업정책, 경쟁정책 등에 따라 겪는 어려움이 있는 편임.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그렇지만 유사한 어려움을 중국의 민간기업도 겪고 있음. 즉, 모든 소유제 기업에 대한 평등대우 여부와 관련된 문제임.

예를 들어 매년 3월에 중국발전연구기금회에서 주최하고, 전 세계 500대 기업과 중국 정부에서 참여하는 중국발전 고위급포럼에서 많은 기업들이 공업정보화부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담당자와의 교류를 가장 희망함. 왜냐하면 외자기업이 중국 내 영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미국과의 BIT협상에 있어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 기준에 따라 외자기업이 시장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를 추진할 의향을 밝힌 적 있는데 만약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외자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반부패 조치 시행 이후 국내외적으로 명품과 주류 소비가 많이 감소되었음. 그러나 최근 마오타이주 모기업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일반소비자들의 구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최근 몇 년간 중국소비자의 소비는 상당히 고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오른 것이지 부패단속의 악화와는 무관함.

질문 3.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주로 미국과의 협상이 시장 개방 폭을 결정하였음. 현재 중미 양국이 시장개방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는데 향후 중국의 시장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답변 3.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거나 혹은 중국의 능동적인 결정이라도 개방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하지만 현재 중미 간 진행되는 협상은 국제규칙에 근거해 진행된 것은 아니며, 일부 분야에서 누가 양보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시장 공정성이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크게 감소될 것임. 따라서 중미 BIT의 달성이 양국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중미 BIT는 국제규칙과 원칙에 근거한 협정이기 때문에 국내 개방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 나아가서 개방마인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음.